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안반수의경을 얻었습니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오가는 세월에 대한 회한은 예나지금이나 같은 듯. 병신(1836)년 새해,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禪榻茶煙又是一年 年去年來之中 能有不去來者在否 其間 魚鴻之誤千里遠塗 亦復無怪 世諦人事尙有藉是而印照遠心 在師不滿一呵 在我寔不勝其低回惘悵也 卽見來槭 又是拙書以前出也 未知卽收耶 春風漸邐 禪誦近復何如 獨居無伴否 有勝侶否 世間每易萍散蓬轉 有能住定 不爲此障 亦佳甚也 賤狀依舊插脚於紅塵中而已 近得安般守意經是禪藏之所希 有禪家每以盲捧瞎喝 做去黑山鬼窟不知此無上妙諦 令人悲憫 恨不如與師天機淸妙者一爲對證可歎 維摩經鐵衲 遂食言耳 比與師無來往否 漠然無聞何至此甚 爲我轉致也 姑留不式

참선하며 차 마시며 지내던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해가 가고 오는 중에서도 오고 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 사이 천리 먼 길에서 편지가 잘못된 것도 괴이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세속에서 사람사이의 일은 오히려 이것을 빙자하여 멀어진 마음을 또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에게는 한바탕 웃음거리도 아니겠지만 나에게는 정말 머뭇거려지고 서글퍼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곧 그대가 보내온 편지를 보니 (이 편지는) 제 편지 이전에 보내신 것이라 바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봄바람이 점점 따뜻해지는데 그대(禪誦)는 요즈음 또 어떻습니까. 홀로 계신 것은 도반이 없어서인가요. 훌륭한 도반은 있습니까. 세간에 사는 것은 매번 부평초처럼 떠돌고, 다북쑥처럼 흩날리기 쉽습니다. 머무는 곳이 안정되어 이러한 장애가 없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나 같이 천한 사람은 여전히 홍진 속에 두 다리를 들여놓고 있을 따름입니다. 근래 안반수경을

〈완당전집〉 여초의 7신

“세간의 삶은 부평초처럼 떠돌고…” 당시 불교계 현실 비판도 엿보여

얻었습니다. 이것은 선가에서도 보관하기 드문 책입니다. 선가에서는 흔히 현실성 없는 할과 갈로서(盲捧瞎喝) 어두운 산의 귀신 굴(黑山鬼窟)로 가서, 이러한 최상의 진리(妙諦)를 모르니 사람(의 마음)을 슬프고 비통하게 합니다. 그대와 天機의 淸妙한 세계를 논증하지 못함이 한스럽습니다. 유마경은 철선 스님이 끝내 식언하고 마는군요. 요즘 그대와는 내왕이 없습니까. 막연히 소식도 없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나를 위해 (철선에게) 전해 주세요. 이만 줄입니다.

이 편지는 〈〈완당전집〉〉〈여초의〉 7신에 수록된 것으로, 최근 발굴된 〈벽해타운첩〉에 의해 병신(1836)년 2월5일에 쓴 편지임이 밝혀졌다. 실제 이 편지를 쓴 2월 5일은 새해가 된지 한 달이나 지난 후이지만 초의의 답신이 늦었던가보다. 어김없이 가고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가고 오지 않는 것도 있느냐는 추사의 반문은 바로 초의의 답신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을 이리 표현한 것. ‘천리 먼 길에서 편지가 잘못된 것도 괴이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세속에서 사람사이의 일은 오히려 이것을 빙자하여 멀어진 마음을 또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 한 그의 엄포(?)는 초의의 답신이 늦어진 전후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추사였기에 이 희언(戱言)이 더욱 살가워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간의 삶을 뿌리 없는 부평초나 바람에 흩날리기 쉬운 다북쑥에 비유했던 추사였고, 번뇌가 사라진 초의의 수행자다운 삶을 흥진 속에 빠져 있는 자신과는 다른 차원임을 인정했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당시 불교계의 현실을 준엄하게 비판한 측면도 엿 보인다. 이는 그가 ‘현실성 없는 할과 봉(盲捧瞎喝)로, 어두운 산의 귀신 굴(黑山鬼窟)로 들어가 이러한 최상의 진리(妙諦)를 모르다’ 고 지적한 것. 이런 불교계의 현실이 ‘사람(의 마음)을 슬프고 비통’ 하게 한다는 추사였다. 밝은 지혜의 수행자인 초의와 ‘천기(天機)의 청묘(淸妙)한 세계를 논증하지 못함이 한스럽다’ 는 것은 아마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은 아닐까.

특히 그가 〈〈안반수의경〉〉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수식관의 수행법에 깊이 천착했음을 드러낸다. 초의가 남긴 태식(胎息)에 관한 글은 추사의 수식관에 대한 관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을 선택한다!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정직한 행복학 강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생각들……
이 생각들 속에 행복이 있을까?

우리에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
가만히 내게 귀 기울이면 들리는 것이 있다.
그 속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

최신간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의 습관과
홀가분하게 이별하기

심리학자 김정호 지음 | 224쪽 | 13,000원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읽기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 읽기’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그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여는 글〉 중에서

서광 스님 지음
288쪽 | 14,000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반야 참회

‘반야 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반야 참회는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수행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혜룡 스님 지음
288쪽 | 13,000원

불광출판사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아이들 미래가 불교의 미래”

어린이 포교 30년 송묵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2013년 새해 아침 공기가 차가운 1월 2일 조계종 포교원을 찾았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송묵 스님은 남양주 봉선사 포교국장 등 국장직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등을 맡아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다.

스님을 만났을 때 스님은 막 라오스에서 귀국한 터였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이사로서 파라미타(이사장 정여)가 구랍 24~31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 외곽의 참파마을과 사방마을에서 진행한 의료봉사 및 교육지원사업에 참가했다. 스님은 여기서 직접 학교보수를 할 뿐만 아니라 라오스 학생 50명에게 각각 매년 장학금 150불을 5년동안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왔다. 직접 책상과 의자를 고쳐주며 고됐을 텐데도 스님은 밝은 웃음으로 취재에 임했다.

천진불 아이들, 불자로 키워내야 불교 미래 밝아

“아이들은 천진불입니다. 어렸을 때 받은 도움과 사랑은 이 아이가 컸을 때 더 큰 사랑으로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따르던 송묵 스님은 아이들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자 말을 쏟아냈다. 스님과의 대화는 차를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교육과 어린이 포교는 100년 대계입니다. 1,2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50~100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비사상을 잘 가르쳐 이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송묵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교육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새해에는 희망이 보인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웃종교를 보면 100년 전 고통을 감내하며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스님들이 이웃종교의 성장세를 보며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많은 스님들이 포교는 미래며 특히 어린이 포교가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송묵 스님은 자살, 폭력, 왕따 등 문제는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분야라고 힘주어 말했다.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포교와 교육에 재가불자들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법회를 하는 사찰이 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신도들이 경내가 소란스러워 진다고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신도들 중에서도 조용히 기도하러 온 분들은 아이들이 뛰어노는게 달갑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신도들이 많은 사찰은 어린이 법회를 하려다가도 접는 경우가 많아요.”

스님은 어린이법회는 신도 대중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어린이들을 불자 중고등학생으로 이끌어가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신도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력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스님들이 원력을 가지고 신도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송묵 스님은 종단 소임 중에도 어린이 법회는 빼먹지 않고 법사로 나서고 있다.

“불교계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불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도가 천명이면 어린이 청소년은 수백은 돼야 하는데 어머니는 절에 오면서 아들딸은 절에 안보내요. 전 가족을 불자로 만드는 포교가 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불교는 심각한 문제에 처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함께 절에 오는 포교가 돼야 합니다.”

스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초하루?지장재일 등 재일 위주의 법회에서 탈피해 주말 법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아이 챙기는 보육원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배워

송묵 스님의 열띤 포교론을 듣고 있으니 문득 스님이 어떤 계기로 포교원력을 세웠는지 궁금해졌다.

“스님, 스님은 어떻게 포교활동에 나서게 되셨습니까.”

스님에게 전법과 포교의 사명을 물으니 우문이었다. 스님은 빙긋 웃으며 운허 스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강사로 살려던 스님의 진로가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출가한 봉선사는 운허 스님이 불경을 한글로 번역했던 역경, 교육도량입니다. 운허 스님은 항상 아이들이 오면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탕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시던 말씀이 ‘너희들이 부처님 같이 되라’ 는 말이었습니다. 강원을 졸업하고 강당에서 강사를 하려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불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고 ”

스님의 포교원력이 꽃을 피운 것은 1994년 ‘자비와 행함이하나되어회’ 를 조직하면서 부터다. 스님의 주석처인 남양주 동원정사를 중심으로 250여 명이 활동중인 ‘자비와행함이하나되어회’ 는 봉선사와 본말사, 그리고 화계사 등의 신도들을 비롯해 천주교 신부, 수녀들과 인근교회의 목사들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야말로 범사찰, 범종교계 사회봉사단체다.

스님은 자행회를 통해 매월 1만원 씩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200여 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장학금을 지원했다.

“고아원, 보육원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만으로 적성 개발이 됩니까. 하지만 일반 가정 아이들이 하는 컴퓨터, 피아노 공부 등은 꿈도 못꿀 일이에요. 더 큰 문제는 대학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가 지원금은 턱이 없고 보육원에서 부담하기에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송묵 스님은 그로인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공고나 상고를 선택해 학업의 길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위하는 마음을 보육원 아이들에게서 느끼고 오히려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100년 내다보는 인재불사 해야
라오스 학생 50명 5년 후원 약속
‘자비와 행함 하나 되어 회’ 이끌어
불교 스카우트 등 인성교육 앞장

“안산 송암보육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부에 적성이 있는 남학생이었어요. 보육원에서 대학을 보내줄 방법이 없어 학비를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2학년 때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스님, 저에게는 학비 안대주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힘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 저보다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세요. 큰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삶 살고 싶어요.’ 그 남학생이 백화점, 마트에서 새벽에 짐 배달해주며 스스로 사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일이라면 화주자리 마다 안 해

그로부터 스님은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력에서의 다양한 회장직은 사실 상 화주자리였다. 30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보람된 일도 많았다.

“마석의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도법사로 있었는데 아이들끼리 대판 싸워서 경찰서에 아이들이 잡혀간 겁니다.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싸움 주동자인 학생이 있더군요. 사춘기 때는 욕구불만이 감정으로 쉽게 표출됩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생 부모님에게 바른 학생으로 이끌어보겠다고 하고 절로 데려왔어요. 졸업할 때까지 매일 108배를 같이 하고 한방에 자면서 등산도 하고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기도도 같이하고 했습니다. 한때 싸움만 하던 그 아이가 육군사관학교에 갔어요. 육군 소령이

2012년 제5회 불교 어린이 청소년 지도자 연수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화이팅하는 모습.